

##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전선

석철수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우리 나라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건에서 경제강국까지 건설하여야 사회주의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입니다.》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전선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경제강국건설이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세상에 자랑할수 있는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세상에 나라도 많지만 우리 나라처럼 전군, 전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은 없다. 정치사상강국이야말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이다.

우리 나라는 선군의 기치밑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섰다. 군력이자 국력이다.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식민지망국노의 비극을 면할수 없었던 지난날의 우리 나라가 오늘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전변된것은 참으로 력사적인 사변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으로 하여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건설을 선행시키는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며 력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쏘련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제국주의자들의 공세를 물리치지 못하여 사회주의진지를 지켜내지 못한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정치사상적진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후과이며 이라크, 리비아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미제와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것은 신념이 약하고 군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지 않은 후과이다.

력사의 교훈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경제강국건

설에 총력을 집중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

경제강국건설이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다.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중의 유훈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우리 경제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뿌리깊고 왕성한 거목이 되고 그 풍요한 열매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행복하게 부르며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경제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목적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 당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이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물질적부의 소비과정인것만큼 인민생활문제는 빈터에서 해결될수 없다.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워야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에 허덕이고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전체 인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점점 다양해진다.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자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며 이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자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평양시를 비롯한 도처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을 기념비적창조물들로 련이어 일떠세운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적시책이다.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사회와 경제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창조된 물질적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돌려지고있는것만큼 경제발전이자 인민생활향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은 인민생활을 세상에 부럼없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것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일떠서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이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되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이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이미 마련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정치군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겨 실현할수 있다.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경제강국건설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은 단순히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높은 정신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인민군군인들이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창조되었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은 자강력제일주의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진행된다. 경제강국건설과정에 인민대중의 정신력이 더욱 높아지고 일심단결의 위력도 높이 발양된다.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인민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인민들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된다. 인민들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더욱 공고화된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안전한 로동조건,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하고 최대한의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게 되면 누구나 사회주의제도를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강국건설이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사강국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무장장비를 계속 현대화하여야 한다.

무기와 군수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은 국방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해결된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방공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한다.

중공업을 발전시켜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군사강국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있다.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생산하는 국방공업의 자립성은 자체의 경제력으로 국방공업을 물질적으로 담보할 때 보장된다.

국방공업에서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자립적인 국방공업만이 나라의 군력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국방공업의 자립성은 자체의 경제력에 의거할 때 보장된다.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를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자위를 담보할수 없다.

자체의 경제력으로 국방공업의 발전을 물질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경제강국이 건설되면 민족경제의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그것은 자립적인 국방공업의 물질적기초로 된다.

이것은 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이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제강국건설이 가지는 이러한 의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